

“아름다운 선율로 아동들과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한국씨엔, 아동양육시설 기독심애원에 600만원 상당 악기 기증

한국씨엔주식회사에서는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숨겨진 끼와 특기를 살려 보다 다양한 취미활동으로 읊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하기 위해 예능동아리인 밴드부에서 사용할 드럼과 기타 키보드, 앰프 등의 악기(총 600만원 상당)를 아동양육시설인 기독심애원(원장 김명수)에 기증했다.

이날 기증식에는 한국씨엔(주) 입직원 및 나눔누리(씨엔 봉사동아리) 회원들을 비롯하여 기독심애원 직원과 아동들이 참여한 가운데 악기를 전달하였으며, 밴드 세팅공연도 선보였다.

이번 기증은 2013년도부터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씨엔(주)의 나눔누리 봉사동아리에서 “아름다운 선율로 사회를 따뜻하게 보듬고 꿈을 키우는 기독심애원 아동들과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나눔의 마음이 회사에 전해져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처럼 의미있는 악기후원이 이루어졌다.

기증식에 참여한 한국씨엔(주) 김달중 대표는 “이번 악기 기증으로 문화체험 기회가 많지 않은 기독심애원 아동들에게 다양한 악기를 배워 연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감수성을 키워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푸른나래 밴드 동아리 운영이 활성화되어 꿈나무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독심애원 김명수 원장은 “한국씨엔(주)의 악기 기증으로 아동들과 직원들이 음악으로 소통하며 한마음이 되어 아이들의 자신감과 자립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하고, 정기 연주회와 지역사회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신=장양원 기자

육군 35사단, 임실읍 상성마을 봉사활동

육군 35사단 장병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해 불난을 더욱 떠뜻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9일 35사단 본부 근무대 장병 20여명은 화재로 전소돼 몇 달째 흉불스럽게 방치돼 있던 임실읍 상성마을 소재 주택을 찾아 화재 진해물 및 주변 환경정리를 비롯한 농지 정리 등의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마을주민 김모씨는 “주택 화재로 실외에 빠져 잔해물을 치울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며 “장병들의 봉사활동 덕에 시름을 덜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회석 읍장은 “노인층이 많은 농촌지역에 젊은 장병들의 봉사활동은 많은 도움과 훌륭소가 된다”며 “앞으로도 상성마을과 35사단 본부 근무대 자매결연을 통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덕진경찰서 지능수사팀, 3월 최우수 베스트 수사팀 선정

전주덕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2회 연속 최우수 베스트 수사팀으로 선정되는 평가를 거뒀다.

덕진경찰서 지능수사팀은 전북경찰청이 주관한 3월 중 지능범죄수사팀 평가에서 최우수 베스트 수사팀으로 선정됐다.

특히 덕진경찰서 지능수사팀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단속과 함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기획수사에 집중, 2회 연속 베스트 수사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능수사팀은 최근 전국에서 모집한 대포통장을 고속버스 수화물편을 이용해 60회에 걸쳐 대포통장 300여개를 현금 인출책에게 양도한 대포통장 모집책을 구속하는 등 민생침해 사법 28명을 경거, 전화금융사기와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선 공적을 인정받았다.

/안진수 기자



정재연 전북대병원 방사선사 우수논문상 수상

전북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정재연 방사선사가 지난 3월 26일 전주대학교에서 열린 2016 대한전산학회총기술 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정 방사선사는 이번 대회에서 ‘전산화단층영상에서 조영제와 생리식염수 혼합물의 금속성 인공물(Metal Artifact) 감소방법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인체 내 많은 인공물이 삽입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CT 검사 시 나타나는 인공물(Artifact)의 감소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정재연 방사선사는 조영제를 이용해 인공물(Artifact)을 감소시킬 수 있는 CT의 매개변수(Parameter)를 연구함으로써 기존의 영상보다 높은 품질의 진단적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김영재 기자



순창경찰서, ‘목천골 빛꽃축제’ 서 4대 사회약 균절 홍보활동

순창경찰서는 지난 10일까지 나흘 동안 순창읍 경천면에서 개최되었던 ‘2016 목천골 빛꽃축제’에서 찾았다는 4대 사회약 균절 홍보활동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흡응을 얻었다.

이번 홍보활동은 4대 사회약 없는 안전한 순창’이라는 인식 확산과 순창경찰의 4대 사회약 균절 추진의지를 지역주민에게 전파함으로써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된 것이다.

특히 이번 축제기간 ‘학교폭력’을 주제로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순창문화원 주관)하여 지역 학생들과 학교폭력의 이름과 상처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아동대학 사진 전시회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또한 전북청 찾았다는 통합정보보단의 기마대, CSI 과학체험을 통해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알찬 재미와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흥보효과를 더욱 높였다.

최규원 서장은 “4대 사회약 균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안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창=구인규기자

무진장소방서 대표 국민성·김언준 ‘심폐소생술 경연’ 최우수상

무진장소방서는 지난 8일 군산호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동에서 열린 전라북도 ‘밀민안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 참가했다.

이날 대회에 무진장소방서 대표로 참가한 장계공업고등학교 2학년 국민성(남, 17) 김언준(남, 17) 학생은 속련도와 정확성을 높이 평가받아 영예의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방법을 알려 심정지환자 발생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실시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각 소방서 대표 10개팀이 출전했으며, 미국심장협회(AHA)의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의한 29개 평가지표에 따라 심사가 진행돼 정확성, 팀워크, 속도, 기록지 점수를 합산해서 고득점 순서에 따라 3개팀을 선정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장계공업고 김언준·국민성 학생은 오는 27일 대구 소방안전박람회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전라북도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장수=고판호기자



전북스마트쉼센터, 인터넷·스마트미디어 중독 해소 논의

전북스마트쉼센터(이하 쉼센터)에서는 11일 새롭게 구성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 전북인터넷중독대응센터에서 전북스마트쉼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북도 직영체제로 새롭게 전환한 쉼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쉼센터에서는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 해소를 위해 예방 교육과 상담 치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교육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네온교실’과 청소년 대상 심화교육인 ‘WOW 멘토링’ 등이 운영되고 있다.

‘네온교실’은 교육을 원하는 공공기관 및 학교, 보육시설, 업체 등에 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파견해 진행하는 교육으로 1회에 1시간 강의를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회당 유아 40여명, 초·중·고등학생 80여명, 성인 120명 기준으로 진행한다. 교육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현황 및 사례, 예방법 및 대처방안, 인터넷·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법 등을 중점 교육한다.

‘WOW 멘토링’은 청소년 대상 심화교육으로 1회 2시간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예방에 대한 토론방식으로 회당 청소년 30여명이 함께하는 참여형 교육으로 이뤄진다.

전북스마트쉼센터 관계자는 “인터넷·스마트미디어 중독 해소 사업을 통해 도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대 직원, 수목원 조성 기금 1700만원 기부

군산대학교 나의군 총장 등 군산대학교 직원 일동이 학교서당 수목원 조성을 위해 1,700만원을 기부했다.

이 기금은 군산대학교가 내년에 맞이하게 될 개교 70주년 기념 ‘시민과 대학이 함께 하는 학교서당 수목원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군산대학교는 개교 70주년을 맞이해 캠퍼스 내 수종을 간수하고, 해양대학, 공과대학, 음악관, 생활관 일대 학교 부지 26만 5천㎡(약 8만평)를

숲이 우거진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수목원 조성에 기금 및 묘목 등을 기증한 시민들에게는 감사패를 증정하고 10계좌(1계좌 5만원) 이상 기부자의 나무이름표도 부착할 예정이다.

군산대학교 학교서당 수목원이 조성되면 캠퍼스와 군산지역 환경이 보다 폐적해지고, 학생들을 위한 생태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되는 등 시민들을 위한 좋은 휴식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문정곤 기자

고창경찰서,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고창경찰서는 노인들이 많은 관내 특성상 순찰 근무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주민접촉이 쉽지 않아 지난해부터 시행해온 꼼꼼이 순찰을 하면서 치안서비스와 관련 주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치안 피드백을 통한 실생활 및 춤형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리적 프로파일링 등을 이용한 관내 친인수요를 사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미을을 방문, 주민들과의 문안순찰을 통해 다양한 주민의 소리를 청취하고 모바일 폰을 활용하여 치안 피드백을 작성, 전 직원이 치안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

노경우 생활안전과장은 “주민 중심의 꼼꼼한 정성 순찰을 통해 주민의 다양한 소리를 청취하고 전 직원의 친인정보 공유로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실시하겠다. 이를 통해 보다 더 공감받고 사랑받는 고창경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동록번호: 경북 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주) 960-912 전주시 완산구 기관로 222 4층 (서노동)

부회장 김승곤 전무 김관준 편집국장 이백수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증인자사 010-9688-0074
인후자사 246-6855
임상자사 256-2404
팔복자사 258-6944
군산지사 010-2241-7947
화이자사 010-8065-9305
의심자사 08-9923
www.jjmaeil.com
등록번호: 경북 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주) 960-912 전주시 완산구 기관로 222 4층 (서노동)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판 이상현 본지는 신문온라인 및 그 실현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경찰청, 농협 전북본부와 농촌마을 치안 MOU 체결

전북지방경찰청은 11일 농협 전북지역본부와 농·축산물 절도예방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경찰과 농협 전북지역본부는 범죄에 취약한 농촌마을 치안 확보를 위해 CCTV 등 설치에 적극 동참, 농협 조합원인 농민들의 재산보호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김재원 전북청장은 “농촌마을의 치안을 위해 방범시설을 확충하고 헬기 항공순찰 등 농촌지역 치안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태호 농협 전북지역본부장은 “조합원 원활한 사업수행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진수 기자